

냉전과 20세기 사회경제적 역사*

빌프레드 로스 독일 예센 문화과학연구원

냉전은 권력정치(power politics)와 안보, 패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닌, 산업발전의 여러 단계에서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에 대한 서로 다른 이론들 간의 갈등이기도 했다. 물론 이념과 신념체계가 냉전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지만, 사회 갈등 역시 광범위하게 냉전의 경과와 결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냉전시기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도전에서 시작해 다양한 사회적 개념이 출현했지만, 특별히 대중적으로 선호하는 모델이 부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자면, 집단주의적 중앙계획경제는 커다란 비용에도 불구하고 저개발 사회들을 근대화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강점을 보였다. 반면에 자유시장경제는 적어도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제도와 일국적, 국제적 수준의 계획을 일정한 정도 수용한 이후에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었다. 정치적 자유가 생산성과 혁신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이다.

주제어 냉전, 이데올로기와 신념체계, 사회갈등, 집단주의적인 중앙계획경제, 자유시장경제

I. 들어가며: 소련의 도전과 서구의 승리

냉전은 부르주아-자본주의 질서를 혁명으로 전복시키려는 국제적 운동과 소련이 연계되어 이루어진 결과였다. 소련의 독재자들(또한 훗날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의 독재자들)은 자신들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곧 일어나게 될 세계적인 혁명운동의 선구자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독재정권은 단지 물리적인 힘과 공포만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정권의 설립으로 물질적 이익과 사회적 지위를 얻

* 이 글의 논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Loth(2010: 503-523, 569-570). 냉전 역사에 대한 최근의 문헌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Dülffer(2013: 57-76); Romero (2014: 685-703).

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도 유지되었다. 그와 동시에 소련 밖에서도 크고 작은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들 역시 모스크바의 지원에 의존했다. 이에 따라 소련에게 위협을 느낀 자들은 자신들의 자유뿐만 아니라 재산과 전체적인 삶의 방식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다.¹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국가사회주의자들에 격렬하게 저항했고, 공산군들도 독일과 그 동맹국들을 격파하는 데 상당한 공을 세웠다. 이 때문에 해방된 유럽국가들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감과 신규 당원의 입당 현상이 나타났다. 반(反)파시스트 세력의 광범위한 연합이라는 공감이 많은 이들에게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전후 첫 선거에서 상당수의 표를 얻었다. 이러한 성공은 유럽의 정치 판도가 대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영국 노동당이 1945년 7월 투표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 다른 국가들에서도 사회민주당의 투표 점유율이 높아졌고 새로운 기독교민주당 중 일부는 ‘기독교사회주의’라는 이름하에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파시즘의 실패 이후 자유주의의 실패가 이어지자 많은 유럽 국가는 자국이 사회민주주의의 경로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혁명을 통한 격변이 아니라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복지국가의 확장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미국은 전후 유럽의 정치 판도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고 유럽의 대부분이 다시 공산주의자들의 손으로 들어갈까 염려했다. 미국인은 유럽 내에서 (단지) 사회주의적 개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연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산당의 득표가 많다는 점이 대서양 건너의 국가(미국)를 두렵게 했다. 재건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 피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큰 위협으로 보였다. 그들은 틀림없이 당시 유럽의 빈곤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첫 번째 봉쇄정책은 경제적인 것이었고, 이때 출범한 마셜 플랜의 취지는 유럽의 소생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혁명적인 프로그램들은 매력을 잃게 되었다. 마셜은 마르크스주의에

¹ 냉전 역사에 대한 최근 연구를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Hildermeier(1998),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Brown(2009)을 참조.

서 제시하는 미래에 대항할 만한 비전을 전파하였다. 그것은 시장경제와 의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자유주의 사회, 근대화를 계획하는 국가에 부응하는 선진 산업사회의 필요성, 국가가 조직한 사회적 평등화, 그리고 국가경제를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내로 최대한 통합하는 것 등이 포함된 것이었다. 미국의 이상은 전쟁 전에 추구한 자유주의의 재개를 통해서가 아니라 뉴딜정책의 변형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마셜 플랜에 대해 논의하면서 서구(the West)는 스스로 권력의 연합체이자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의 상징인 소련과 대립 상황에 있는 어떤 사회적 전망(vision)으로서 인식하였다(Milward, 2004: 59).²

마셜 플랜에 참여한 16개국이 1948년부터 1953년까지 (대부분은 무상원조 형태로) 받은 달러 원조는 산업재와 자본재 수입에 사용되었다. 이 달러 원조는 무엇보다도 극심한 달러 적자를 줄임으로써 재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의 수입을 가능케 했다. 판매자들은 수입 물품의 판매 수익금을 자국 은행에 국가 통화로 비축해야 했고, 소위 ‘대충자금(counterpart fund)’이 재정 및 금융의 안정, 생산 능력의 확장, 그리고 그 밖의 복구를 지원하는 목표를 촉진하는 데 쓰였다. 마지막으로, 마셜 플랜은 유럽 국가들 사이의 무역 및 지불이 쌍무주의에서 다자주의로 변환되는 데 기여했다. 이 성과는 무엇보다도 참여국 간의 무역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조건부(conditional)’ 마셜 원조(Marshall aid)와 인출권(drawing rights)의 할당을 통해 이루어졌다. 1951년 회계연도에서는 총 마셜 원조의 거의 20%가 1950년 9월에 설립된 유럽결제동맹(the European Payments Union: EPU)의 운영자본으로 할당되었다(Milward, 2004: 59). 유럽결제동맹은 서독의 수출성장을 촉진시켰는데, 이는 서독의 재건뿐만 아니라 다른 서유럽 국가들의 산업화에도 기여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유럽은 장기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재건이 이루어졌다. 194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전쟁 전의 공업생산 수준에 도달했다. 전쟁의 피해가 특히 심했고 점령국들의 제재로 생산을 방해받았던 서독은 1951년에서야 전쟁 이전 수준으로 생산이 가

² 냉전의 발생 당시 정치, 사회, 경제적 역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Loth(1988); Milward(2004: 58-81) 참조.

능해졌다. 서유럽의 경제성장은 전쟁 전의 공업생산 수준을 회복한 데에서 멈추지 않았고, 195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연평균 7.1%씩 성장하였다. GDP는 총액 기준 연간 5.5%, 1인당 GDP는 연간 4.4%씩 성장했다. 이 수치는 산업화의 발전 정도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소득 또한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1970년에는 1인당 생산량이 1950년 생산량의 2.5배 이상이었으며, 1인당 소득은 연간 평균 4.5%씩 증가했다. 서유럽의 이러한 성장은 미국보다 두 배나 빨랐고, 유럽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속도였다. 1950년에서 1970년 사이의 20년 동안 1인당 연간 소득이 250%에서 400% 사이로 증가했다(Aldcroft, 1994: 124, 130, 133).

실질 소득의 급격한 증가는 서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소비의 팽창으로 이어졌고, 생활수준은 현저히 향상되었다. 직종이 다양해지고 이동성이 증가하며 여가 활동이 편리해지자 기존의 사회적 환경이 광범위하게 붕괴되었다. 전통적 농민 문화와 부르주아와 노동자 계급의 문화 또한 영향력을 잃었다. 새롭게 등장한 ‘소비사회’에서 기존 계급 간의 문화적 차이는 더욱 확실해졌지만, 정작 그 사이의 경계선은 희미해졌다. 이제 물질적 차이와 뚜렷한 계급의식보다 취향이나 유행과 같은 ‘미세한 차이점’이 사회집단을 특징지었다. 서유럽은 이렇게 미국과 유사한 선진 산업사회로 발전하고 있었다(Fourastié, 1979 참조).

동시에 지속적인 변영은 민주질서의 안정화를 가져왔다. 어떤 현실적인 혁명의 전망도 제시하지 못했던 공산주의자들은 지지세력의 3분의 2를 잃었다. 오랫동안 유권자의 20 내지 30%의 지지를 확보했던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조차 공산주의자들은 반체제의 고립 속에서 시들어갔다. 1956년 11월에 소련군이 헝가리 혁명을 진압한 후 지식인 대부분은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를 접었으며, 사회민주당들 내부에서도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의 타당성이 약해졌다. 이제 서유럽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계급 갈등에 기반한 혁명적 권력 장악이 불가능해졌고, 오히려 서유럽은 동구권 사회들에게 더 매력적인 힘을 행사하게 되었다(Judt, 2005 참조).

II. 체제 간의 경쟁

이와 같은 발전과정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실패를 경험했고, 대공황의 영향을 극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동시대인들에게 놀라운 경험이었다. 또한 이런 발전과정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 다수는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보다 낫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스탈린의 정책이 산업화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이었다. 1928년에서 1940년 사이 12년 동안 소련의 공업 생산은 급격히 증가했고, 그 반면 GDP에 대한 농업의 비율은 두번째 위치로 축소되었다(Altrichter, 2001: 84).

전쟁 시기의 엄청난 파괴 후 소련의 재건은 신속하고도 인상적인 성공을 거뒀다. 1945년경 공업생산은 전쟁 전 수준의 92%에 달했고, 1950년에는 173%에 달해 1946년의 4개년 계획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25%나 초과되었다. 전쟁 종식 후 수년 만에 거의 두 배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던 것이다(Nove, 1992: 298). 무력 갈등으로 극심한 방해를 받았던 산업화도 그 원동력(dynamics)을 되찾았다.

마찬가지로, 1945년부터 소련의 통제하에 있던 국가들에서도 역동적인 재건이 일어났다. 이 국가들이 전쟁 때문에 입은 손해는 서유럽보다 심했다. 또한, 소련의 반대로 마셜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전쟁이 끝난 후 이 국가들이 전쟁 이전 수준의 공업생산을 회복하는 데는 3~4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다만 동독에서는 소련의 제재 및 배상 정책으로 좀 더 오래 걸렸다. 동구권 국가들 전반에 걸쳐 전후 재건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고, 이 국가들은 대체로 소련이 채택한 계획경제모델의 지원을 받았다. 1950년에서 1970년 사이 연간 GDP 성장률은 평균 7% 정도였다(Aldcroft, 1994: 130, 173ff). 이는 단지 주로 농업국가였던 발칸반도 국가들이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종합적으로 동유럽 공산권의 근대화는 서유럽의 근대화보다 훨씬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니키타 흐루쇼프(Nikita Khrushchev)는 동구권 공업생산의 이런 놀라운 성장률을 소련의 체제가 서구의 그것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그는 동구권 국가들이 번영과 소비의 사회로 발전함으로써 서유럽을 따라잡고 능가하

여 사회주의가 승리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소련 공산당의 1961년 프로그램에서 그는 소련의 공업생산 수준이 10년 안에는 미국을 뛰어넘고, 20년 안에는 여섯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흐루쇼프는 그리하여 1970년대에는 소련이 “그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높은” 생활수준을 즐길 것이라고 낙관했다(Altrichter, 2001: 145ff).

흐루쇼프의 낙관론은, 1930~40년대 서유럽 자유주의체제들이 과거 제국주의의 전성기 동안 권력 자원이 되었던 식민지들을 상실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기도 했다. 식민지 독립을 위한 투쟁은 대체로 마르크스주의의 변종인 레닌주의로의 지향과 결합되는 경향이 있었다. 초기 식민지 해방운동은 서양에서 교육받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불세비키 전문 혁명가의 성공적 모델은 더 매력적이었다. 마오쩌둥 공산당이 오랜 기간의 갈등을 거쳐 1949년에 승리를 거머쥐자, 이는 많은 후속 독립운동 지도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혁명가들이 프랑스 식민지 지배자들과 미군에 대항해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가는 것 역시 영감을 주었다. 1959년 이후에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권이 남반구 혁명운동의 매력적인 모델로 성장했다. 소련 지도부가 이처럼 다양한 혁명운동과 혁명정권을 통제하에 둔 적은 한번도 없었지만,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세계관에서 말하는 소위 “권력관계의 지구적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이런 조직들을 소련의 치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제3세계 내의 권력경쟁은 그렇게 냉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Westad, 2005).

그러나 소련의 산업화 과정은 두 가지의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 첫째, 강제 집단화로 농업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있었고, 투자도 중공업과 군수산업 쪽으로 일방적으로 할당되었다. 그 결과 소비재의 생산은 빈약했고, 1930년대에는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대중의 생활수준과 소비수준이 하락하였다. 이런 상황은 산업화의 진행만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없었다. 1950년대에 농촌과 도시 주민의 환경이 조금 더 나아졌지만, 소련은 서구의 발전된 소비사회들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다. 1950년 소련의 GNP는 미국 GNP의 32.7%였고, 1965년에는 45%에 이르렀다. 일인당 GNP로 보자면 소련은 실제 산업국가들에 훨씬 뒤쳐진 20위에 머물렀다(Altrichter, 2001: 145).

1945년 이후에 소련의 모델을 채택하도록 강요받은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발전을 경험했다. 가난은 사라졌고, 대중교통 시설은 확장되었으며, 가정에는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등이 등장했다. 동구권 국민들 또한 근대 소비사회로의 성장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들과 서구 소비사회들 사이에는 여전히 두드러지게 차이가 났다. 동구권 국가들 간에도 큰 차이가 있었지만, 가계소비의 성장률은 서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시장이 아니라 관료제가 정한 만큼 그 질은 다소 낮을 수밖에 없었고, 가장 인기있는 - 그래서 가장 높은 값에 팔리던 - 상품들은 항상 재고가 부족했다. 이 시기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었다.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난민 행렬은 이런 차이를 명확히 드러냈다(Aldcroft, 1994: 177ff).

1961년 베를린 장벽의 설치에 동구권 국가들이 스스로 선포했던 체제 간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게다가,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에게는 공산주의 정권은 서구의 영향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되는 경우에만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서구사회가 점점 증가하는 수요와 새로운 자신감을 만끽하고 있을 때 동구에서는 양보와 강요가 혼합된 정권을 보존하는 데에 전념해야 했기 때문이다. 서구 유럽에서 혁명이란 이념적 공상일 뿐이라는 것이 명확해진 1960년대 당시, 동구권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혁명을 통한 팽창이 아니라 밀려오는 자본주의를 억제하는 것이었다. 당시 공식적으로는 “계급투쟁”이라 불렸던 것이 사실, 동구권 권력층이 자유세력에 대해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었다. 밀로반 질라스(Milovan Djilas)는 1958년에 이들을 “새로운 계급”이라고 적확하게 특징지었다.

III. 나가며: 데탕트와 소비에트 연합의 붕괴

동구권이 국경을 폐쇄하고 프라하의 봄의 반대세력을 진압하자 ‘새로운 계급’은 잠시 ‘서구화’로의 추세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들의 고립은 지속될 수 없었다. 생활수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을 막고 대중의 불만이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련은 서구권의 용자를 받아 무

역관계를 확장시켜야만 했다. 하지만 대출을 받는 데는 조건이 있었다. 유럽안 전보장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에서 서구 외교관들이 제시한 이 조건은 동구권이 적어도 “사람, 사상, 그리고 견해”의 상호교환을 개방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동구권과 서구권 사이의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자유유럽방송(Radio Free Europe)과 서구 텔레비전 방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또한 서구의 상황과 서구적인 관점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Villaume and Westad, 2010).

동구권에 대한 서구의 새로운 접근은 두 가지 의미에서 경제적 풍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한편으로 경제적 풍요는 국경을 개방하고 공개적 경쟁을 수용하는 정책을 취하기 위해 필요한 자신감의 기초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국가들이 동구권의 구미를 당길만한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유대를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을 보면 서구권의 소비사회로의 변화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의 데탕트 정책 사이에는 시간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도 존재했다. 그것들은 동구권에서는 경제협력과 국방비 지출 감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었던 것과도 상응했던 것이다. 철의 장막 양쪽에서 일어난 반체제 운동은 이러한 발전의 일부였다(Suri, 2007 참조).

그러나 동구권 국가들은 서구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다. 자금을 곧장 소비를 촉진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물품을 생산해내는 데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이나 경제적 시설이 부족했다. 중공업, 특히 군수산업에서 부족한 자원인 자본과 숙련공들이 유출되었다. 또한, 석유와 연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집약 부문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게다가 둔감한 국가경제관료들은 마이크로컴퓨터와 극소전자기술(microelectronics)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동구권 국가들이 부채 위기에 놓이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다. 수입을 하고 이자를 갚을 형편이 될 만큼 경쟁력 있는 물품을 수출하지 못했고, 커져만 가는 이자 상환금은 내부적 투자에 이용할 자금을 잡아먹음으로써 결국 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소비를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³

³ 소비에트 제도의 마지막 위기에 대해서는 Brown(1996), 국제관계에 중점을 둔 설명에 대해서는

제3세계 국가들 중 소련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지원을 받아 좌파 정권을 수립한 국가들 역시 극심한 부채 위기를 겪었다. 그들은 무분별하게도 투자 기회를 찾아 세계를 떠돌아다니던 오일달러로부터 용자를 받음으로써 큰 빚을 진데다가 훨씬 높은 에너지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결국 그들의 지불불능상태(insolvency)는 제3세계 국가 발전의 토대를 허물었다. 이와 동시에 소련 정부는 남반구에 있는 우방국들을 지원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인기가 없는 동맹군을 지원하느라 수렁에 빠진 공산군은 소련 내에서도 제3세계에서 소련의 행보가 과연 현명하고 효과적인지 점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실제로, 소련이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아시아(쿠바와 니카라과 역사)에 방대한 지출을 한 것만큼 많은 것을 얻었다고 볼 수 없었다. 대신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소련 내부에서 “실재하는 현존 사회주의(real existing socialism)”를 창출했던 것이다.

동서 간 소통의 증가 측면에서 보면, 공산독재 정권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대중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장애물이나 생활수준의 급격한 저하로 인한 불만이 널리 향의 운동을 일으켰고, 이는 곧장 ‘현존 사회주의’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데로 이어졌다. 폴란드에서는 1980년부터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계엄령조차도 장기적으로는 불만을 억누르지 못했다. 1989년 봄에 재개된 노동자 불안이 다당제로의 전환을 고무하자, 지도층에 대한 전반적인 거부감이 헝가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독일민주공화국(동독),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밖의 위성국들까지, 동구권 전체에 팽배했다. 소련에서는 미지근한 개혁 시도가 물자의 공급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에 대한 불만은 각지에서 민족주의적인 운동을 초래했다. 사회주의 지역 모든 곳에서 물질적 조건에 대한 좌절과 정치 수뇌부에 대한 격분이 통치질서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

공산당 지도자들은 서구사회의 모델을 대부분 채택하는 개혁을 통해 구원책을 찾거나, 자신들이 그렇게 대변한다고 했던 노동자 계급의 반발에 항복해야만 했다. 서구 국가들이 요구한 사회적 개방성이나 정보통신의 기술혁명 앞에서 더

이상의 환상이 유지될 수 없었다. 이렇게 소련의 수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의한 개혁이 도입된 것이다. 간혹 동구권 지도자들이 협력하기도 했지만 이런 변화는 대체로 동구권 국민들이 엄격한 제도의 수감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킨 것이었다. 말 그대로 철의 장막이 허물어졌던 독일민주공화국에서 국민들은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통일을 이루자고 투표했고, 이제 그들 앞에는 서구의 경이로운 번영이 놓여 있었다.

돌이켜보면, 소비에트 블럭의 내파(implosion)는 10월혁명의 지도자들이 제정이 무너진 러시아에서 내세웠던 환상들, 그 후의 전 세계적 공산주의 세대들이 뒤따랐던 환상들이 나중에서야 산산조각 난 사건이었다. 서구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환상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고, 사회주의 국가들도 소비사회로의 점진적 전환과 함께 그 믿음을 잃었다. 그럼에도 공산주의 지배층은 자신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권위를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기술발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매우 밀접히 상호 연결된 세상 속에서 중앙통제의 집산주의 경제의 한계가 모든 이에게 명백히 드러났고, 결국 그들 또한 무너졌다. 이와 같이 냉전은 근대 산업사회의 갈등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근대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종결된 것이다.

투고일: 2015년 5월 19일 | 심사일: 2015년 7월 13일 | 게재확정일: 2015년 7월 22일

참고문헌

- Aldcroft, Derek H. 1994. *The European Economy 1914~1990*.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Altrichter, Helmut. 2001. *Kleine Geschichte der Sowjetunion 1917~1991*. Munich: C. H. Beck.
- Brown, Archie. 1996. *The Gorbachev Factor in Soviet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Archie. 2009. *The Rise and Fall of Communism*. London: The Bodley Head.
- Dülffer, Jost. 2013. "Ost-West-Konflikt und Globalisierung. Neue Forschungen zum

- Kalten Krieg.” *Mittelweg* 36, 57-76.
- Fourastié, Jean. 1979. *Les trente glorieuses ou la révolution invisible*. Paris: Fayard.
- Hildermeier, Manfred. 1998. *Geschichte der Sowjetunion, 1917~1991*. Munich: C.H. Beck.
- Judt, Tony. 2005. *Postwar: A History of Europe since 1945*. London: Heinemann.
- Loth, Wilfried. 1988. *The Division of the World, 1939~1955*. London: Routledge; enlarged German edition. 2000. *Die Teilung der Welt. Geschichte des Kalten Krieges 1939~1955*. Munich: Deutscher Taschenbuch-Verlag.
- Loth, Wilfried. 2002. *Overcoming the Cold War. A history of détente, 1950~1991*. Houndsmills and New York: Palgrave und St. Martin's Press.
- Loth, Wilfried. 2010. “The Cold War and the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the twentieth century.” In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II: Crises and Détente*, 503-523, 569-5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ward, Alan S. 2004. “Europe and the Marshall Plan: 50 Years On.” In John Agnew and J. Nicholas Entrikin, eds. *The Marshall Plan Today. Model and Metaphor*, 58-81.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Nove, Alec. 1992. *An Economic History of the USSR, 1917~1991*.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Romero, Federico. 2014. “Cold War Historiography at the Crossroads.” *Cold War History* 14: 685-703.
- Suri, Jeremy. 2007. *The Global Revolutions of 1968*. New York: W. W. Norton.
- Villaume, Poul and Westad, Odd Arne, eds. 2010. *Perforating the Iron Curtain. European Détente, Transatlantic Relations and the Cold War, 1965~1985*. Copenhagen: Museum Tusulanum.
- Westad, Odd Arne. 2005.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Cold War and the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the Twentieth Century

Wilfried Loth Kultur wissenschaftliche Institute

The Cold War was not only about power politics, security and hegemony—it was also a conflict between differing theories of how to organize economies and societies at the various stages of industrial development. Ideologies and belief systems helped define the Cold War front lines, but social conflict also largely determined its course and outcome. Beginning with the Marxist challenge to the capitalist system, multiple social concepts emerged during the course of the Cold War without any clear popular model emerging. In the long run, however, collectivist and centrally-planned economies exhibited some strengths in modernizing less developed societies albeit at great costs. Oppositely, free-market economies showed greater productivity, at least after having accepted state-run systems of social welfare and a certain degree of planning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at political freedom favoured productivity and innovation ought to be one of the major lessons of the twentieth century.

Keywords | Cold War, ideologies and belief systems, social conflict, collectivist and centrally-planned economies, free-market economies